

石介의 <怪說>研究*

李承信**

<목 차>

1. 들어가며
2. 宋初 三先生 石介
3. 釋老와 楊億의 '괴이함'에 대한 반대
4. 간결한 구성과 효과적 표현
 - 4.1 치밀한 구성과 文眼
 - 4.2 효과적인 수사기교
5. 나가며

1. 들어가며

중국고전산문사상 당·송대의 고문운동은 정치적 개혁과 맞물려 큰 변화와 발전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공헌한 당송팔대가들의 지위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유의 고문운동을 계승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송육가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구양수와 소식 등에 대한 연구와 그 성과는 중국 고전산문 연구에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고문운동을 중심으로 당·송대를 계승 발전한 산문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육가의 고문운동의 초석을 다진 북송 초기 문장가들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石介와 그의 대표적 문장 <怪說>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산문사상 石介에 대한 평가는 사실 그리 높

www.kci.go.kr

* 본고는 2018년도 중국어문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됨.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외래교수

지 않으며, 간략하게 언급한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그는 북송초기 고문운동의 일인자로, 宋六家에 비해 작품 활동이 미진한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북송 초기 慶曆新政에 동참하며 함께 고문운동을 추진한 歐陽修 등의 작품에 비하면 질적·양적으로 그 지위가 공고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북송 초기 '宋初三先生'이라 불리며, 胡瑗, 孫復 등과 함께 북송 학술을 주도하며 고문운동에 미친 영향만큼은 간과할 수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石介의 산문사상의 역할을 점검해보는 일단계로서 그의 명문으로 잘 알려진 <怪說>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宋初 三先生 石介

石介는 胡瑗, 孫復과 함께 理學을 창시한 학자이자 사상가로, '治道'를 주장하며 유가 연구에 있어 章句 해석과 義理에 치중한 데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유학자들은 이들을 '宋初三先生'이라 부르며, 宋學의 정신으로 삼았다. 북송 초기는 신진사대부들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문벌 귀족의 우위를 점하게 되는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三先生은 '治道'의 정신으로 강학하고 고문운동을 승상했다.

宋이 흥한 지 80년이 지나 安定 胡瑗 선생, 泰山 孫復 선생, 徂徠 石介 선생이 비로소 師道로 학문을 바로 세웠고, 이를 계승하여 周敦頤와 二程의 理學이 흥하였다. 그러므로 지금의 理學이 二程에 와서 훌륭하지만 실은 세 선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晦庵 朱熹는 伊川 程頤가 감히 세 선생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¹⁾

1) 《宋元學案·泰山學案》: 宋興八十年, 安定胡先生, 泰山孫先生, 徂徠石先生始以師道明正學, 繼而濂洛興矣. 故本朝理學雖至伊洛而精, 實自三先生而始, 故晦庵有伊川不敢忘三先生之語.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三先生은 理學을 창시하여 선구적 역할을 했고, 石介는 胡瑗, 孫復과 함께 당시의 교육을 담당하며 慶曆新政과 古文運動을 적극 지지했다.

石介(1005~1045)의 字는 守道, 公操이며 兗州 奉府(지금의 山東省 泰安市 岱岳區 徂徠鎮 橋溝村) 사람이다. 天聖 8年(1030)에 진사에 급제하여 國子監直講을 거쳐 太子中允의 관직에까지 이르렀다.²⁾ 그는 孫復, 胡瑗과 함께 泰山書院과 徂徠書院을 창건하여 《易》, 《春秋》 등을 유생들에게 교학하며 송대 이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으며, 일명 ‘泰山學派’의 창시자로서 ‘理’, ‘氣’, ‘道統’, ‘文道’ 등의 이론으로 후대 二程과 朱熹 등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石介는 儒家의 입장에서 佛敎와 道敎에 반대하고 황권을 내세워 북송 초기 중앙집권강화의 논지를 강화했으며, 인의와 예악으로 학문을 강구했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주장했다. 그는 문장은 반드시 儒家의 道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怪說>, <中國論> 등의 문장을 써서 佛家와 道家를 배격했다. 그는 傳疏에 치중한 경학 연구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우고 ‘治道’를 구하였고, 강학을 통하여 유가의 經世治民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師道를 확립했으며 佛老에 반대했다. 또한 文道の 관계를 중시하며 고문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고문운동이 추진하는 文風과 文體의 변화, 傳道の 취지를 지지했으며 유가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격의 수양과 사회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며 유가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³⁾

또한, 石介는 북송 고문운동을 주도한 歐陽修와는 동료 사이로 그와의 교류를 통해 북송 문단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북송 고문운동은 화려한 문체에만 집착하는 변려문의 폐단을 극복하고 당대 한유의 문장을 추송하며 문장가

2) 《宋史·儒林傳》: 孫復字明復, 晉州平陽人, 舉進士不第, 退居泰山, 學春秋著尊王發微十二篇, 大約本於陸淳而增新意. 石介有名山東自介而下皆以先生事. 復年四十不娶. 李迪知其賢, 以其弟之子妻之. 復初猶豫, 石介與諸弟子請曰公卿不下士久矣. 今丞相不以先生貧賤欲託以子宜因以成丞相之賢名. 復乃聽孔道輔聞復之賢就見之. 介執杖履立侍復左右升降拜則扶之, 其往謝亦然. 介既爲學官語人曰, 孫先生非隱者也. 於是范仲淹富弼皆言復有經術宜在朝廷除秘書省校書郎國子監直講.

3) 張 君, <宋初三先生“治道”思想初論> (中國政法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참조.

들에게 文道를 전하는 충실한 내용과 아름다운 장구를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 歐陽修를 중심으로 서원에서 수학하고 과거를 통해 입신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고문운동에 동참했고 宋代 六家를 배출해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다수의 문인들이 인정한 宋初 三先生의 영향력은 문학과 정치 영역에서 크게 발휘되었으며, 후세에까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특히, 石介는 구양수보다 나이는 두 살 더 많았는데, 같은 해 함께 진사에 합격하여 동료이자 친구로서 동시대를 살았고 구양수의 정치적·문학적 동지로서 당시 문단과 정치, 학술의 변화에 동조했다.⁴⁾ 그는 빈한한 가정 형편 하에서도 뜻을 굳게 세우고 학문에 매진하였으며, 柳開를 추모하고 찬미하며 고문가의 道統으로 인정했다. 그의 시 <過魏東郊>에서 柳開를 찬미하고 그의 古文의 道統에 대해서 王通과 韓愈와 견줄만하다고⁵⁾ 추대하면서 古文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6세의 나이로 진사에 합격한 후에는 이러한 사상을 더욱 부각시키며 유학자, 도학자, 교육자로 북송 초기 개혁을 위해 공헌했다. 이에 <慶曆頌德頌>⁶⁾을 써서 자신의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개혁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이 시가 기존 세력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골자로 한 까닭으로 반대파의 극렬한 반항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石介와 뜻을 같이

4) 李承信, <宋初 三先生이北宋古文運動에 미친 영향 연구—歐陽修와 石介의 교류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제59집, 2018) 참조.

5) <徂徠石先生文集·過魏東郊>: 全魏地千里, 雄大視區宇. 黃河爲血脈, 太行爲筋膂. 地靈育聖賢, 土厚含文武. 堂堂柳先生, 生下如猛虎. 十三斷賊指, 聞者皆震怖. 十七著野史, 才俊後遷固. 二十補亡書, 辭深續堯禹. 六經皆自曉, 不看注與疏. 述作慕仲淹, 文章肩韓愈. 下唐二百年, 先生固獨步. 投篇動范杲, 落筆驚王祐. 四方交豪傑, 群公走聲譽. 一上中高第, 數年編士伍. 五命爲御史, 連出守方土. 事業過臯夔, 才能堪相輔. 鳳凰世不容, 衆鳥競嘲訴. 獄中飢不死, 特地生爪距. 貔貅十萬師, 盟津直北渡. 塞上諸猛將, 低頭若首鼠. 渴憶海爲漿, 飢思螯爲脯. 兩手拿人肝, 大床橫牛肚. 一飲酒一石, 賊來不怕懼. 眼下立孫吳, 樽前坐伊呂. 笑談鉛鈴間, 出入經繡務. 匈奴恨未滅, 獻策言可膚. 幽州恨未復, 上書言可取. 好文有太宗, 好武有太祖. 先生文武具, 命兮竟不遇. 死來三十載, 荒草蓋墳墓. 四海無英雄, 斯文失宗主. 豎子敢顛狂, 黠戎敢侮侮. 我思柳先生, 涕泣落如雨. 試過魏東郊, 寒鴉啼老樹. 丈夫肝胆喪, 眞儒魂魄去. 瓦石固無情, 爲我亦慘沮.

6) <慶曆聖德頌>은 石介가 國子直講이었을 때 呂夷簡이 재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仁宗이 范仲淹, 韓琦, 富弼 등을 등용하여 慶曆新政을 추진하게 되자, 이를 기뻐하며 쓴 시이다. 石介는 이 시를 지어 조정의 인재 등용을 가송했는데, 이로 인해 반대파들의 미움을 크게 샀다. 杜衍 등이 적극 변호해서 죄는 면했으나 정치적으로 좌절하게 되었다.

하는 개혁파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개혁파들은 개혁의 과정 중에 石介의 지나치게 혹독한 비판으로 인해 반대파가 강렬하게 저항하여 오히려 개혁의 길을 모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며 石介를 비난했다.⁷⁾ 이 일로 인해 그는 보수파는 물론, 그와 뜻을 함께 한 개혁파 모두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관직으로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고 그의 개혁주장 역시 다른 개혁파들에게 동조를 얻긴 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차이를 보이는 등 순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에 그는 조래산에 들어가 서원을 세우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으며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죽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모함을 받아 부관 당할 위기에 처했고 그의 가족들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다. 다행스럽게도 함께 진사에 급제한 동기이자 막역한 친구 구양수가 이를 저지하여 간신히 부관당하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구양수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았다.⁸⁾ 그의 뛰어난 학식과 강직한 성품을 구양수는 누구보다도 인정해주었으며, 그의 사후에도 벗으로서 그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石介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련 연구 또한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의 명문으로 잘 알려진 <怪說>에 대한 분석을 통해 石介와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3. 釋老와 楊億의 '괴이함'에 대한 반대

石介의 <怪說>은 上·中·下 三篇으로 구성되며 上篇에서는 釋老에 대한

7) <宋史·石介傳>: 會徐狂人孔直溫謀反, 搜其家得介書, 夏竦銜介甚, 且欲中傷杜衍等, 因言介許死, 北走契丹, 請發棺以驗, 詔下京東訪其存亡, 衍時在兗州, 以驗介事語官屬, 衆不敢答, 掌書記龔鼎臣愿以闔族保介必死, 衍探懷出奏稿示之, 曰, 老夫已保介矣, 君年少, 見義必爲, 豈可量哉! 提点刑獄呂居簡亦曰, 發棺空, 介果北走, 孛戮非酷, 不然, 是國家無故剖人家墓, 何以示後世? 且介死必有親族門生會葬及棺斂之人, 苟召問無異, 卽令具軍令狀保之, 亦足應詔, 于是衆數百保介已死, 乃免斫棺.

8) <歐陽修全集·徂徠石先生墓誌銘>: 先生既歿, 妻子凍餒不自勝, 今丞相韓公與河陽富公, 分俸田以活之. 後二十一年, 其家始克葬先生於某所, 將葬, 其子師訥, 與其門人姜潛杜默徐遁等

반대, 中篇에서는 楊億의 부화한 문풍에 대한 반대라는 논지로 요약된다. 그리고 下篇에서는 石介의 앞선 주장을 두고 세간에서 비판하는 다수의 학자들을 향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대변한다.

북송 초기 유학은 불가와 도가의 영향으로 변모된 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 문인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그들의 문장 역시 駢文의 수사와 기교에 충실한 상태였다. 고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개혁과 함께 문장의 개혁을 주장했고 石介는 여기에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불가와 도가와와의 타협은 물론 약간의 수용도 결사반대한 인물이다. 이는 이미 변모된 신유학의 분위기 하에서 개혁파들에게조차도 빈축을 사는 일이 되었고 반대파들의 극심한 저항을 받아 결과적으로 개혁의 실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이처럼 지나치리만큼 명확하고 분명한 그의 논지는 <怪說>에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다.

저들이 군신의 도를 멸하고 부자의 친함을 끊고 도덕을 버리고 예악을 어그러뜨리며 오상을 파괴하니, 사방의 백성들이 티전을 옮기고 중국의 의관을 훼손하며 조상을 버리고 夷狄에게 제사를 지내며, 꺾고 굽고 상도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행해지고 요상하고 현혹되며 사람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설들이 만연한데, 오히려 그것이 괴이한 것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없애 제거하질 못하고 그것을 숭배하며 떠받들기까지 한다. …… 저들의 손자, 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조상을 잊고 부모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평상복을 찢어버리고 오랑캐의 가르침을 익히고 오랑캐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괴이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 없애질 못하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며 진귀하게 떠받드니 더욱 괴이하다 할만하다. 극심하다. 중국에 괴이함이 많도다. 사람들 중에 괴이하지 않은 자가 거의 드물다.9)

來告曰，謗焰熄矣，可以發先生之光矣，敢請銘！

- 9) <怪說·上>: 彼其滅君臣之道, 絕父子之親, 棄道德, 悖禮樂, 裂五常, 遷四民之常居, 毀中國之衣冠, 去祖宗而祀夷狄, 汗漫不經之教行, 妖誕幻惑之說滿, 則反不知其爲怪, 旣不能禳除之, 又崇奉焉. …… 彼其孫其子其父其母, 忘而祖宗, 去而父母, 離而常業, 裂而常服, 習夷教, 祀夷鬼, 則反不知其爲怪, 旣不能厭勝之, 又尊異焉. 愈可怪也. 甚矣, 中國之多怪也. 人不爲怪者, 幾少矣.

당시 歐陽修, 蘇軾 등의 고문운동을 주도하던 宋六家들은 기본적으로는 儒家의 道에 충실했지만 이미 변모된 유가의 성격을 반영하듯 문장 안에서 불가와 도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수용 양상을 보인다. 사대부들은 불교도, 도교도와 빈번한 교류를 하였고, 특히 불교도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현실 도피적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속을 추구하는 전향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石介는 君臣, 父子의 道가 어그러지고 도덕과 예악이 파괴되고 해괴한 것들을 숭배하고 제사지내며 그것이 괴이한 현상인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대부들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하였다. 이는 石介가 완벽한 유가의 도만을 지향하는 철저한 유가주의 태도를 견지했음을 보여준다.

<怪說> 中篇에서는 당시 화려한 수사기교에 치중하여 부화한 문풍을 따르는 楊億의 문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준다.

지금 양역이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 모양을 궁구하며 음풍농월만을 일삼고 화초를 희롱하며 사치하고 화려한 기교를 부리고 부화한 것을 짜깁기 하니, 성인의 경전을 도려파내고 성인의 말을 파괴하며 성인의 뜻에 어긋나고 성인의 도를 헤쳐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書經》의 <堯典>, <皐陶謨>, <禹貢>, <洪範>, 《詩經》의 <雅>, <頌>, 《春秋》, 《易經》의 <繇>, <爻>, <十翼>을 행하지 않게 하고, 양역을 따라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 모양을 궁구하며, 음풍농월만을 일삼고 화초를 희롱하며 사치하고 화려한 기교를 부리고 부화한 것을 짜깁기하게 하니 이것이 크게 괴이한 것이다.¹⁰⁾

石介는 晚唐의 四六文과 西崑體를 써서 대우와 전고 및 화려한 미사여구를 중시한 楊億과 그러한 부화한 문풍을 추종하는 자들이 대거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문장의 폐단이 극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괴이한 일이라고 적극 공격했다.

이처럼 石介가 <怪說> 上篇과 中篇을 써서 釋老와 교류가 빈번하던 대부분의 사대부들과 駢麗文의 형식주의를 따르던 문장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자

10) <怪說·中>: 今楊億窮妍極態, 綴風月, 弄花草, 淫巧侈麗, 浮華纂組, 剗鍤聖人之經, 破碎聖人之言, 離析聖人之意, 蠹傷聖人之道, 使天下不爲書之典謨禹貢洪範, 詩之雅頌, 春秋之經, 易之繇爻十翼, 而爲楊億之窮妍極態, 綴風月, 弄花草, 淫巧侈麗, 浮華纂組. 其爲怪大矣.

그들의 반발을 크게 샀고, 이에 대해 石介는 다시 <怪說> 下篇을 써서 이들에 대해 분개하며 또다시 일침을 가한다.

佛老가 요망하고 괴이하고 허황된 교리로써 그것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며 楊億이 사치하고 화려하며 부화한 억지 기교로써 그것을 파괴하니 내가 우리 聖人の 道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며 파괴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지 佛老와 楊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인의 도를 배웠으니 우리 聖人の 道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¹¹⁾

이러한 石介의 논지는 개혁파들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고 예리했으며 원만한 개혁이 아닌 정면 도전적인 개혁을 향한 충만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그의 <怪說>은 이들에 대항해서 쓴 문장이므로 각고의 고심 끝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怪說>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북송고문가가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모범적인 문장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4. 간결한 구성과 효과적 표현

4.1 치밀한 구성과 文眼

<怪說>은 《徂徠石先生文集》內 雜著에 편입되어 있는데, 雜著는 광범위한 내용과 다양한 형식을 지니며 일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문체 형식이다. 徐師曾은 《文體明辨·雜著》에서 대개 雜著는 의리를 근본으로 하고 性情에서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하고, 劉鏞이 이들 명칭을 총괄하면 잡다한 양식의 범주에 귀착하나 내용의 의리는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¹²⁾

11) <怪說·下>: 佛老以妖妄怪誕之教壞亂之, 楊億以淫巧浮僞之言破碎之, 吾以攻乎壞亂破碎我聖人之道者, 吾非攻佛老與楊億也. 吾學聖人之道, 有攻我聖人之道者, 吾不可不反攻彼也.

또, <怪說>의 '說'은 일반적으로 記敍와 議論 또는 說明 등의 방식으로 일의 이치를 서술하는 문체이다. 이는 '論'에 비하면 논리성과 분석성의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반면, 의리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체이다.¹³⁾ 이에 姚鼐는 《古文辭類纂》에서 산문 문체 분류 중 書說類를 의리를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문체로 구분하고, 진술한 표현과 내용을 중시하는 설명적인 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說'은 기교적인 표현을 통해 언어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이에 근거하면 <怪說>은 신뢰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개인감정이 묻어나는 서정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怪說>은 上, 中, 下 三編으로 구성된다. 먼저, 上篇에서는 釋老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제로 삼고, 짜임새 있는 구성과 '文眼'을 통해 명확하고 분명한 주제를 전달한다. 첫 단락에서 일곱 가지의 '괴이함'을 제시하여 '常道'가 어그러진 현실을 깨우치게 한다. 日月과 五星의 괴이함, 山川의 괴이함, 君臣과 父子의 괴이함, 衣冠과 士農의 괴이함, 禮樂과 五常의 괴이함, 祭祀의 괴이함, 社稷의 괴이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句에서 이러한 '괴이함'으로 인해 도가와 불가가 세상에 만연해 있음을 말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괴이함'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괴이함'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 단락에서 이미 말한 日月과 五星의 '괴이함'으로 인해 온 天地가 괴이하며, 君臣과 父子 간의 괴이함으로 인해 道德과 禮樂, 五常이 어그러져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오랑캐에게 제사를 지내며 불경한 가르침과 행동에 빠지고 요상하고 해괴한 설들이 만연한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그 상황이 괴이함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막지 못하니 더욱 괴이하다고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괴이함에

12) 徐師曾, 《文體明辨·雜著》: 按, 雜著者, 詞人所著之雜文也. 以其隨事命名, 不落体格, 故謂之雜著. 然稱名雖雜, 而其本乎義理, 發乎性情, 則自有致一之道焉. 劉勰所云, 并歸體要之詞, 各入討論之域, 正謂此也.

13) 吳訥, 《文章辨體序說疏證》: 說者, 釋也, 解釋義理而以己意述之也.

14) 唐 韓愈의 <師說>, <雜說>, 유증원의 <捕蛇者說> 등이 '說' 문체의 대표적 초기 작품이다.

빠진 심각한 상황을 개탄하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러한 괴이함이 계속되었고, 향후로도 또다시 천년이 지나도록 괴이함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가와 도가의 괴이함으로 인해 중국이 무너지고, 영원히 聖賢의 道를 회복하지 못할까 크게 걱정하며 탄식한다. 이 문장에서 모든 내용은 '怪'로 집약되며, 무려 열일곱 개의 '怪'字가 보인다. 이것이 바로 문장에서 주제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제시해주는 '文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怪說> 中篇 역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락에서는 혹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괴이하다 여기지 않는 것을 石介만이 괴이하게 여기는 이유를 묻자, 楊億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聖賢의 道를 보고 듣지 못하게 하고 聖賢의 道가 사라지길 기다려서 楊億 자신의 道만을 보고 듣게 한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를 예시하여 지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楊億의 道를 보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사라진 후 聖賢의 道를 듣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楊億이 《書經》, 《詩經》, 《春秋經》, 《易經》에 반하여 미사여구와 부화한 기교에만 매달려 聖賢의 道를 훼손하는 것이 괴이한 것이며, 이러한 楊億을 추종하며 따르는 일은 더욱 크게 괴이한 것이라고 한다. 石介 자신이 이러한 괴이한 것들을 없애고 괴이하지 않음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石介를 괴이하다고 여기는 것을 애통해한다. 石介는 여기에서 열 한 개의 '怪'字를 쓰고 있는데, 첫 단락 앞부분에서 다섯 개의 '怪'字를 집중적으로 쓰고, 마지막 셋째 단락 뒷부분에서 또다시 다섯 개의 '怪'字를 집중적으로 쓰고 있다.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에서 '怪'字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石介 자신의 '無怪'함을 향한 의지를 오히려 '怪'로 오해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怪說> 下篇은 上篇과 中篇에 비해서 편폭이 좁다.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락에서는 石介가 쓴 <怪說> 上篇과 中篇, 두 편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을 적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釋老와 楊億의 무리들을 따르는 대중적인 흐름 속에서 石介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여 화를 자초한다고 비난받

음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적고 있다. 여기에서 石介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얼굴색을 붉히며 이에 응대한다고 표현하여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며, 자신은 釋老와 楊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聖人の 道를 파괴하는 요망하고 괴이한 교리와 부화한 기교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반격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이에 결사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한다.¹⁵⁾ 일곱 개의 ‘道’字를 써서 聖人の 道를 추구함을 강조하고 있다.

<怪說>에서는 이상과 같이 점층적 문단 구성, 대조적 문단 구성, 심층적 문단 구성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집중적인 同字의 활용과 반복을 통한 文眼을 사용하여 분명하고 명쾌한 논리를 이끌어내어 釋老의 괴이함과 楊億의 부화한 문풍의 괴이함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4.2 효과적인 수사기교

石介는 <怪說>에서 虛字의 다용, 구법의 변화, 排比와 對偶, 感歎과 反問의 사용 등을 통해 보다 평이하고 간결하며 효과적인 표현으로 설득력 있는 문장을 쓰고 있다.

먼저, 그는 문장 중에 ‘也’, ‘則’, ‘而’, ‘其’, ‘以’, ‘夫’ 등 다양한 종류의 虛字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虛字의 운용은 문장 내에서 정감의 표현과 직결되며, 문장의 낭송을 통한 사상 감정의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 劉大櫚는 《論文偶記》에서 문장의 법도를 인식하고, 虛字가 작품의 ‘神態’와 ‘情感’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劉淇는 문장은 實字와 虛字로 구성되는데, 實字가

15) 尙麗姝는 石介는 道를 위해 살고 道를 거스르면 죽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유가사상을 선양하여 유가의 정통지위를 옹호했지만,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고독한 개혁가였다고 평가했다. (<孤獨의 衛道者——宋初思想家、文學家石介三論>, 淮南師範學院學報, 2016 참조.)

16) “上古文字初開，實字多，虛字少。典謨訓誥，何等簡奧，然文法自是未備。至孔子之時，虛字詳備，作者神態畢出。左氏情韻并美，文彩照耀。至先秦戰國，更加疎縱。漢人斂之，稍歸勁質。……

體骨이라면 虛字는 性情에 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⁷⁾ <怪說>에는 대량의 虛字가 사용되어 갖가지 정감이 다양하게 표출되며, 音韻美를 갖추어 여러 번 낭송하여도 싫증이 나질 않는다. 다음은 <怪說>에 주로 나오는 虛字를 表로 정리한 것이다.

| 作品 | 字數 | 夫 | 而 | 之 (*18) | 其 | 也 | 者 | 矣 | 以 | 焉 | 然 | 與 | 則 | 且 | 虛字小計 |
|-----|-------|----|----|------------|----|----|---|----|----|---|---|---|----|---|------|
| 怪說上 | 643 | 9 | 12 | 15 (27) | 9 | 28 | 3 | 5 | 7 | 9 | 0 | 0 | 12 | 0 | 109 |
| 怪說中 | 484 | 2 | 5 | 29 (34) | 7 | 3 | 0 | 3 | 1 | 0 | 0 | 0 | 5 | 0 | 55 |
| 怪說下 | 332 | 1 | 6 | 19 | 2 | 8 | 2 | 4 | 6 | 0 | 1 | 1 | 0 | 2 | 52 |
| 合計 | 1,459 | 12 | 23 | 63 | 18 | 39 | 5 | 12 | 14 | 9 | 1 | 1 | 17 | 2 | 216 |

위 <표>는 石介의 <怪說> 上·中·下 三篇에서 사용한 虛字의 數를 비교한 것인데, 총 字數와 그 중 사용된 虛字의 數를 보면 石介가 虛字를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전체 字數 1,459字 가운데 216字의 虛字를 쓰고 있는데, 이는 14.8% 이상의 虛字 사용을 의미한다. 이는 韓愈와 歐陽修의 문장보다 훨씬 더 많은 虛字 사용을 의미하며, 石介 문장의 문학성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실마리로 여겨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石介가 의도적으로 虛字의 多用을 통해서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

文必虛字備而後神態出，何可節損？”

17) 《助字辨略》：構文之道，不過實字虛字兩端，實字其體骨，而虛字其性情也。

18) * 표시는 <怪說> 각 편 전체에서 보이는 글자 '之'의 숫자로, 虛字가 아닌 대명사로 쓰이지만, 문장을 낭송할 때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운율미를 살리므로 참고의 의미가 있다.

19) 李承信의 《歐陽修〈居士集〉의 散文 文體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350쪽의 분석에 의하면 환유는 전체 문장에서 약 3.9%의 虛字를 쓰고 있으며, 歐陽修는 전체 문장에서 약 7.4%의 虛字를 사용하고 있다.

며, 특히 ‘而’, ‘之’, ‘也’는 가장 빈도가 높은 虛字로 石介의 문장을 부드럽게 해 주는 최대의 작용을 한다. <怪說>上篇의 경우 무려 28개의 ‘也’字와 15개의 ‘之’字, 2개의 ‘而’字와 ‘則’字, 10개의 ‘夫’字 나오는 등 총 643字 가운데 109개의 虛字를 쓰고 있다. <怪說>中篇의 경우에는 29개의 ‘之’字와 5개의 ‘而’字, 3개의 ‘也’字 등 총 484字 가운데 55개의 虛字를 쓰고 있다. <怪說>下篇에서는 19개의 ‘之’字, 8개의 ‘也’字, 6개의 ‘而’字 등 총 332字 가운데 52개의 虛字를 쓰고 있다. <怪說>에서 다량의 虛字 가운데 ‘也’字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 이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聖人之所常治也’, ‘四民之所常居也’, ‘衣冠之所常聚也’, ‘道德之所治也’, ‘禮樂之所施也’, ‘五常之所被也’ 등의 ‘也’字가 그 한 종류로 語氣가 잠깐잠깐 끊어지는 것을 표시하며 말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四時代經天之常道也’, ‘可怪也’, ‘地之常道也’, ‘君臣之道也’, ‘父子之道也’, ‘子敵於父可怪也’ 등의 ‘也’字가 또 다른 한 종류로 語氣가 여기에서 완전히 끝남을 표시하여 한 구의 말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曰奚其爲怪也’의 ‘也’字가 나머지 한 종류로, ‘耶’字에 相當하며 反問과 感歎의 語氣를 표시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乎’字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也’字는 곧 ‘乎’字와 같다.

<怪說>에서는 이와 같이 虛字를 다용하여 긴장과 이완으로 문장에 변화를 주고 평이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자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朱熹가 훌륭한 문장은 평이하게 도리를 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이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적인 글자를 사용하면서도 도리어 어조사를 찾게 된다고 평한 것에²⁰⁾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也’字와 함께 가장 빈도수가 높은 虛字로, ‘之’字가 꼽힌다. ‘之’字는 <怪說> 上篇에서 15개, 中篇에서 29개, 下篇에서 19개가 보이는데, 이를 낭송하면 散文임에도 불구하고 음절의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더구나 ‘而’字와 ‘夫’字 등 다양한 虛字를 함께 엮어서 낭송하면 마치 시 한수를 읊듯 운율이 뛰어나다. 石介의 <怪說>은 언어상平易하고 유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그 行文에 치우친 말이나 拗句를 쓰지 않았다. 즉 韓愈의 기이하고 난삽한 측면을 추구하지 않고 宋代 초기 古文의 부자연

20) 《朱子語類卷一三九》: 只是平易說道理, 初不曾使差異底字, 換却尋常底字.

스러운 결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石介가 學問 修養을 바탕으로 한 글자 한글자의 虛字 사용을 정교하게 이루고 字句 마다 작은 변화를 통하여 散文의 예술성을 강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虛字 한 글자를 더하여 문장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작은 변화이지만 독자에게는 매우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²¹⁾

둘째, 石介는 句法의 변화에도 큰 심혈을 기울여 長句와 短句, 排比와 對偶, 疑問과 感歎 등의 각종의 구법을 운용하여 자신의 정감을 표현하고 문장을 활발하고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구는 연결되는 긴 문장이며 단구는 짧은 문장으로 규정한다. 石介는 '괴이함'에 대한 격분과 극한 반대의 지 등을 표출할 때 특히 긴 長句를 쓰고 있다. <怪說> 上篇을 예로 들면, 첫 단락에서 8字에서 15字 내외의 短句를 쓰다가 '괴이함'의 정도가 심함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36字에서 45字 내외의 長句를 써서 감정을 고조 감정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고조된 감정을 최대한 상승시켜 49字에서 71字 내외의 長句를 써서 독자에게 절박함과 애통함을 전달하고 있다. 그 후에는 다시 짙막한 短句를 써서 문장을 마무리한다. 石介의 심정이 격앙되어 한두 마디로는 강렬한 감정을 그칠 수 없는 경우이다. '괴이함'에 대하여 49字와 71字의 長句로 기술하면서 왕성한 기세를 드러내고 억눌린 감정과 격앙된 長句를 긴밀히 결합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특히, 71字에 달하는 長句는 한 번에 읽으면 격분한 정서가 침울한 성조와 완만한 절주로 나타내어짐을 알 수 있다. 불가와 도가의 만연으로 인한 道의 상실에 대해 비절하고 애통한 감정을 長句로 거침없이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短句와 長句를 섞어 쓰면서 몇 개의 층차를 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단락의 長句보다 훨씬 더 긴 최대의 長句를 써서 감정을 최고조로 보여서 같은 長句라도 층위를 둔 점에 주목해본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短句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短句는 감정이 북받치는 長句와는 달리 감정을 함축시키

21) 林緒, 《春覺齋論文·用字四法》: 留心古斷不能將虛字略過。須知有用一語助之辭, 足使全神靈活者, 消息極微, 讀者偶反可也。

고 이성적으로 논지를 이끌어 가는 힘이 있다.

<怪說> 中篇에서도 短句, 短句, 短句, 短句, 長句, 長句, 短句, 長句, 長句, 短句, 長句, 最長句, 短句, 長句, 短句로 구성하여 長句와 短句를 번갈아 사용하며 강약을 조절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무려 94字的 長句를 써서 楊億의 道와 부화한 문풍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상 감정을 표출했다. <怪說> 下篇에서는 短句, 短句, 短句, 短句, 短句, 長句, 短句, 長句, 長句, 長句, 最長句, 長句, 長句, 長句, 短句, 長句로 구성하고, 47字的 長句를 써서 釋老와 楊億에 대한 극심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처음에는 다섯 개의 短句로 시작하다가 일곱 개의 長句를 연달아 배치하여 감정을 고조시키고, 마지막에는 장단구를 번갈아 쓰면서 감정을 풍부하고 강렬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古文에서는 본래 長句와 短句를 병행하여 가지런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므로 당연히 양자가 엇섞인 구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기세와 정감이 왕성하려면 그 말의 長短과 소리의 高下가 모두 그에 걸맞아야 한다. 石介는 바로 이러한 장단구를 잘 선용하여 정감을 펼쳐내었다.

셋째, <怪說>에서는 排比와 對偶를 이용하여 散文의 예술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排比는 특히 論辨의 글 가운데에 많이 쓰여 지는데, 같은 계열이나 혹은 관련된 사물을 연관 짓는 경우가 많다. 排比는 말은 간단하나 핵심만을 꿰뚫는 의미를 지닌다. <怪說> 上篇의 ‘성인들께서 항상 다스려 온 곳이며, 사방의 백성들이 항상 기거하던 곳이며, 의관을 갖추고 항상 모여들던 곳이다(聖人之所常治也, 四民之所常居也, 衣冠之所常聚也)’, ‘도덕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며 예악이 배풀어지고五常의 도리가 입혀진 곳이다(道德之所治也, 禮樂之所施也, 五常之所被也)’, ‘천자는 칠묘, 제후는 오묘, 대부는 삼묘(天子七廟, 諸侯五廟, 大夫三廟)’ 부분과 <怪說> 中篇의 ‘성인의 경전을 도려파내고 성인의 말을 파괴하며 성인의 뜻에 어긋나고 성인의 도를 해친다(剝聖人之經, 破碎聖人之言, 離析聖人之意, 蠹傷聖人之道)’의 부분은 排比를 통하여 儒家에서 지향하는 정치와 도덕규범을 강조하고 楊億의 부화한 문풍의 해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怪說>에는 對偶의 수법이 응용되었다. <怪說> 上篇의 ‘해와 별과 달이 밝음을 서로 대신하고, 四時가 번갈아드는 것은 하늘의 상도이다. 일월이 일식과 월식을 하고 五星이 혜성이 되는 것은 괴이하다할 만하다. 무릇 오악이 평온하고 제사를 지내던 네 곳의 강이 흐르는 것은 땅의 상도이다(夫三光代明, 四時代經, 天之常道也. 日月爲薄蝕, 五星爲彗孛, 可怪也. 夫五嶽安焉, 四瀆流焉, 地之常道也)’,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고갈되는 것(山爲之崩, 川爲之竭)’, <怪說> 中篇의 ‘천하 사람들은 괴이하다 하지 않는데 그대가 괴이하다 말한다(天下不謂之怪, 子謂之怪)’, ‘지금 그대가 괴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괴이하다 한다(今有子不謂怪, 而天下謂之怪)’, ‘천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천하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여 천하 사람들의 눈이 멀어 주공, 공자, 맹자, 양옹, 문중자의 이부의 도를 보지 못하고, 천하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여 주공, 공자, 맹자, 양옹, 문중자의 이부의 도를 듣지 못한다(盲天下人目, 聾天下人耳, 使天下人目盲, 不見周公孔子孟軻揚雄文中子韓吏部之道, 使天下人耳聾, 不聞有周公孔子孟軻揚雄文中子韓吏部之道)’, ‘주공, 공자, 맹자, 양옹, 문중자의 이부의 도가 없어지길 기다린 후에야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의 귀를 열었다(俟周公孔子孟軻揚雄文中子韓吏部之道滅, 乃發其盲, 開其聾)’와 ‘천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하니 천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면 양역의 도를 보지 못하고 천하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면 양역의 도를 듣지 못하게 된다. 양역의 도가 없어지길 기다려서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이의 귀를 열게 한다(盲天下人目, 聾天下人耳, 使天下人目盲, 不見有楊億之道, 使天下人耳聾, 不聞有楊億之道. 俟楊億道滅, 乃發其盲, 開其聾)’, <怪說> 下篇의 ‘불로가 요망하고 괴이하고 허황된 교리로써 그것을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며 양역이 음란하고 부화한 기교로써 그것을 파괴한다(佛老以妖妄怪誕之教壞亂之, 楊億以淫巧浮僞之言破碎之)’는 對偶를 쓴 부분이다. 石介는 문장 안에서 對偶를 운용하여 散文의 들쭉날쭉한 구법에 가지런한 아름다움을 가함으로써 감정 표현을 더욱 원만하고 심오하며 생동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처럼 두 구가 對를 이루는 경우는 石介 문장에서 자주 보여

지는데, 一句 혹은 三句, 많게는 多句에서 對를 이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怪說>에서는 短句對, 雙句對, 三句對가 모두 보인다. 풍부하고 다양한 對偶는 정감과 여운을 주므로 이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石介의 對偶의 수사 방법은 古文을 창작 할 때에 흔히 사용되며, 글자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駢文의 對偶句에서 벗어나 대체로 비슷한 句를 배열하여 사조, 전고, 성률 추구한 駢文에 비하면 더욱 자유롭고 확대된 구법을 개척한 것이다.

<怪說>에서는 句法, 排比, 對偶 등과 같은 수사법을 이용하여, 文從字順의 순정함을 추구하고, 생소하거나 난삽하지 않은 語辭를 사용해 리듬감과 음악성을 살려 散句 속에 정제된 구법을 삽입하는 등, 구의 길이를 변화 있게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치밀한 배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한편, 번다한 언사나 화려한 수식은 자제하면서 정제된 구법으로 작자의 솔직한 감정까지 자연스레 드러내어 설득력을 지닌다.

넷째, 石介는 行文 중에 感歎과 反問을 통해서 '괴이함'에 대한 격한 반대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낸다. <怪說> 上篇에서 괴이함의 정도가 극심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탄식하며 '심하다(甚矣)'라 하고, 다시 그 문장의 말미에 '아아(噫)'라고 하여 성인의 도가 되살아날 수 없음에 대해 다시 개탄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가와 도가의 괴이함이 어떠할지, 중국의 무너짐이 어떠할지(釋老之爲怪也如何, 中國之蠹懷也如何)'라고 反問하여 감탄과 반문을 섞어 쓰며 釋老의 괴이함이 결국 중국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걱정의 정감과 釋老에 대한 반대의 의지가 팽배함을 강조하였다. <怪說> 中篇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감탄사 '嗚呼'를 사용하여 현실의 괴이함을 보지 못하고 石介 자신을 괴이하게 여기는 상황에 대해 통탄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怪說> 下篇에서는 '비록 그대의 설이 장황하나 또 어찌 과연 승산이 있겠는가?(雖子之說長, 又豈能果勝乎)'와 '수많은 사람들일지라도 어찌 나를 두려워하겠는가?(雖萬億千人之衆, 又安能懼我也)'라는 反問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되묻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실례는 모두 감탄구로 되어 있지만 그 정감은 각기

다르다. 극에 달한 분노의 심정, 비통한 심정, 확고한 자신감 등을 다양한 감탄과 反問의 구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유도하며 감정을 함축시키고 있다. 石介는 이러한 感歎과 反問을 단독으로 쓰지 않고 문장 안에서 다른 서술구 사이에 삽입하고 陳述, 感歎, 反問, 再感歎을 교차시킴으로써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石介 散文의 생동적이고 자유로운 예술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당시 점차 口語를 활용하고 어려운 글자 대신 쉬운 글자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수반하여 고문의 간결함과 평이함의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5. 나가며

이상에서 石介의 <怪說> 三篇에 나타난 논지와 문장의 예술성을 고찰해보았다. 古文은 명확한 주제로 ‘簡而有法’을 따르고 적절한 수사 기교를 통해 독자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주어 감동을 전한다. 이러한 점에서 <怪說>은 치밀한 구성과 長短句의 응용, 虛字의 다용, 排比와 對偶, 感歎과 反問 등의 표현 기교를 사용해 釋老의 황당무계한 道와 楊億의 부화한 문풍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名文이다. 또한 난해한 글자 대신 쉬운 글자와 구어가 가미된 표현을 통해 명쾌한 논리와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써서 평이함과 간결함을 갖추고 있다. 북송초기 정치적 문학적 개혁에 동조하며 고문운동을 적극 지지했던 石介가 <怪說>과 같은 문장을 써서 의도적으로 고문의 전범을 보이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유추를 해본다. 당시 대다수의 많은 개혁과 유학자들이 유가와 고문을 숭상하면서도 불가 혹은 도가와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石介는 사상 면에서 강력히 불가와 도가를 배척하면서 순수 유가만을 고수했으며, 문학 면에서 쉬운 글자와 다양한 수사 기교를 활용한 평이한 고문을 통해 기존의 난해하고 부화한 문풍을 척결하고

자 했던 본인의 의지를 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怪說>은 유가 부흥을 바탕으로 정치적·문학적 개혁에 앞장선 石介가 자신의 개혁 의지를 문장을 통해 실천한 의도적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石介 문장의 문학 예술성에 대한 재평가를 기대해보며, 그의 중국산문 사상의 위치 역시 다시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徐師曾, 《文體明辨》, 臺北: 文化學社出版社, 1933.
- 石介撰, 《石守道先生集》, 臺北: 藝文印書館, 1965.
- 石介撰, 《石徂徠集》, 北京: 中華書局, 1985.
- 劉淇, 《助字辨略》, 北京: 中華書局, 1983.
- 脫脫等著,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黎靖德編, 王星賢注解,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 黃宗羲撰, 全祖望補修, 《宋元學案》, 北京: 中華書局, 1986.
- 歐陽永叔, 《歐陽修全集》, 北京: 中國書店, 1992.
- 石介著, 陳植鏗點交, 《徂徠石先生文集》, 北京: 中華書局, 2009.
- 姚鼐, 《古文辭類纂》, 臺灣: 世界書局, 2010.
- 王文祿撰, 《文脈》, 白陵學山本, 北京: 商務印書館, 1937.
- 劉大魁, 《論文偶記》,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 Chau Chan, Wai-yi 鄒陳惠儀, A study of Shi Jie, Hong Kong: University of Hong Kong, 1993.
- 徐安懷編著, 《中國古代散文研究》, 成都: 電子科技大學出版社, 1996.
- 陳玉剛, 《中國古代散文史》, 北京: 人民日報出版社, 1998.
- 郭預衡, 《中國散文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 李春青, 《宋學與宋代文學觀念》,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
- 傅璇琮, 蔣寅, 《中國古代文學通論》,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05.
- 閔澤平, 《南宋理學家散文研究》, 齊南: 齊魯書社, 2006.
- 范敬中, 《范仲淹研究文集》, 北京: 群言出版社, 2009.

- 方健,《北宋士人交游錄》,上海:上海書店出版社,2015.
- 吳訥,《文章辨体序說疏證》,北京:人民文學出版社,2016.
- 張君,《宋初三先生“治道”思想初論》,中國政法大學碩士學位論文,2014.
- 李承信,《歐陽修《居士集》의 散文 文體 研究》,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 姚艷麗,《石介與宋初文學》,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05.
- 趙耀堂,〈論宋初作家石介〉,《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04期,1987.
- 潘富思,徐余慶,〈論石介〉,《山東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04期,1987.
- 黃寶華,〈北宋古文運動發微〉,《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04期,1995.
- 黃海,〈從歐陽修對石介的批評看他的文學思想〉,《安順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01期,2006.
- 何利華,〈石介“氣”思想之淺論〉,《安徽文學(下半月)》10期,2007.
- 樓培,〈北宋洛陽文人集團與南北文學的衝突和融合〉,《中華文史論叢》,2012.
- 王瑞來,〈“子道自能久”——歐陽修《重讀徂徠集》詩〉,《文史知識》,2013.
- 尚麗姝,〈孤獨的衛道者——宋初思想家、文學家石介三論〉,淮南師範學院學報,2016.
- 李承信,〈宋初三先生이 北宋古文運動에 미친 영향 연구 — 歐陽修와 石介의 교류를 중심으로〉,《中國學論叢》제59집,2018.

< Abstract >

A Study on *Guaishuo*(怪說) Written by Shi, jie(石介)

Lee, Seungshin

Shi, jie(石介) is an important politician, a Confucian and a writer in Northern Song Dynasty with Songliujia(宋六家) such as Ouyang, xiu(歐陽修), Su, shi(蘇軾) and so on. Also, he has been respected as a trailblazer in the field of Songxue(宋學), and he is called Songchusanxiansheng(宋初三先生) with hu, yuan(胡瑗), Sun, fu(孫復). He influenced on literature, politics and scholarship of Northern Song period. In spite of his ability, he has been devalued in the

part of Chinese classical prose and Guwenyundong(古文運動). *Guaishuo*(怪說) is a representative prose by shijie, it has many sources of new style Songliujia's thoughts and opinions on movement of the Guwenyundong. He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wide areas such as politics, literature and academic fields of Northern Song Dynasty. Especially *Guaishuo* is involved thoughts of advancing Confucianism, influencing the Writing style, encouraging political and literal reformers. Shi, jie has different, strong and explicit opinions in writing style and thoughts. Xikunti(西崑體) of Yang, yi(楊億), Buddhism and Taoism was violently antagonized by Shi, jie. *Guaishuo* is the prose of expression of these contents by using many literary techniques, such as literary structures, applied short sentences and long sentences, well-used Xuzi(虛字), Paibi(排比), forming an antithesis, exclamatory sentences, asking in return and so on.

Key Words: Shi, jie(石介), Northern Song Dynasty, Songxue(宋學), Songchusanxiansheng(宋初三先生), Guwenyundong(古文運動), *Guaishuo*(怪說), Confucianism, Xikunti(西崑體) of Yang, yi(楊億), Buddhism, Taoism, literary techniques.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8. 7. 31 | 2018. 8. 10 | 2018. 8. 15 | 2018. 8. 27 | 2018. 9. 30 |

